

향우회, 수집도서 아산시립도서관 기탁

이조영 전 서울외고 교장 조선왕조실록등 총900여권 기증



향우회는 회원들이 정성껏 보내준 각종도서 1,300여권을 지난 7월 23일 아산시립도서관(관장 민정일)에 기탁하여 다소나마 고향발전을 기원하는 향우들의 향수어린 성의를 전했다.

이번 도서전달은 "아산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2005년부터 해결책의 일환으로 좋은책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향우회는 그동안 2005년에 2,100여권, 2006년에 1,240여권, 2007년에 1,000여권을 기탁한바 있으며, 올해 1,300여권을 합하여 모두 5,600여권의 도서를 고향에 기탁했다. 이번 도서기증에는 누구보다도 전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이조영(85세·사진) 교장의 배려와 후원이 있었다. 이 교장은 조선왕조실록 475권을 포함하여 900여권을 기증했다. 이 교장은 아산시 남동출신으로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계에 투신, 서울시내 여러 고등학교장을 거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교육계 원로 중의 한 분이다.

在京溫陽鄉友會報

2008년 송년회 개최

향우회는 예년과 같이 2008년도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 아 래 -

- ▶ 일시: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6시 30분
- ▶ 장소: 국방회관(☎02-748-0709)
- ▶ 내용: 지역별 노래자랑, 경품추첨등
- ▶ 특기사항: 경품권 및 기념품 증정

설화산악회, 시랑산 등반

설화산악회(회장 이덕환)는 지난 9월 21일 충북 제천시에 있는 시랑산을 등반했다. 시랑산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산이지만,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명산이다.

● [향우회 메아리]

'정감을 안겨주는 내 고향'



내 고향 권곡리(현 권곡동) 마을 앞에는 안산이 자리 잡고 북쪽에는 논과 밭이 있는 들판 샛들이 있다. 그 너머에는 맑은 냇물 곡교천이 흐르고

서쪽에는 산모래이 고갱이와 함께 마을을 감싸 안은 형상, 내가 가보고 싶은 내 고향 권곡리. 130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동네를 이루는 윗마을, 아랫마을, 고갱이, 안산, 샛들의 이름이 낯익은 지명들의 작은 마을이다. 대개 초가지붕, 토담집, 사리문, 가끔 기와집이 있으나 그 집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그 어린시절 그 마음 새삼 느껴본다. 저녁노을, 마을 어귀에 큰 명석 깔고 누워 앉아 이야기 하시는 어르신네들을 보면 "진지 잡수셨어요"가 인사였던 그 시절, 밥 거르지 않고 밥 굶지 않고 나오셨는지를 물어보는 안부 인사였다. 서쪽하늘 붉은 물이 들어 아름답게 출렁이며 그 사이로 기러기 떼 줄 지어 멀리 사라지고 쭉불을 피워놓고 명석에 누

워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견우직녀의 전설을 생각하게 된다. 반딧불이 깜빡이며 지나간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 다디미 소리를 들으면 스르르 잠이 들어버린다. 일년에 한 번 야의 나들이 가는 전세버스 창가에 앉아 고속도로변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이 글을 메조지에 적으면서 반백의 머리가 휘날리며, 예순다섯 나이가 실감나지 않는다. 이 권곡리 친목회 모임이 없으면 영원히 만나볼 수 없었던 분들을 만나 2개월에 한번씩 그 간의 안부를 묻고 전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부모형제, 이웃, 친구, 선후배들. 이제 작고하거나 멀리 흩어져 있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사랑방에 모여 앉아 오순도순 옛날과 같이 이야기 하기가 힘들고 지금은 그 동네 권곡리가 온양온천3동이라고 지명이 바뀌었고, 사방이 큰 건물, 빌딩, 콘크리트 아파트로 삭막하다. 그 고향 내 고향 권곡리가 그리워진다. 여기 권곡친목회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음을 새삼 느끼며 잠시 행복감에 젖어본다.

<향우회 지도위원 김 준 규>

[알림] 재경아산온양향우회 소식은 향우회보 제68호(2008. 10. 10일자)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 보도해 드립니다.